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6. 1.(금) / 총 4매(본문3)
담당 부서	항공교통과	담 당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김남극, 주무관 고한승 • ☎ (044) 201-4299, 4301
보 도 일 시		2018년 6월 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3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‘올해말 중국·유럽행 하늘길 더 빠르고 안전하게....하늘길 넓어진다’

- 인천-북경하늘 경유 몽골하늘까지 1,700km 연결하는
복선항로, 연내 개설키로 한·중 당국 합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: 김현미)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한·중 항공교통당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「한·중 항로 개선 워킹그룹회의」를 개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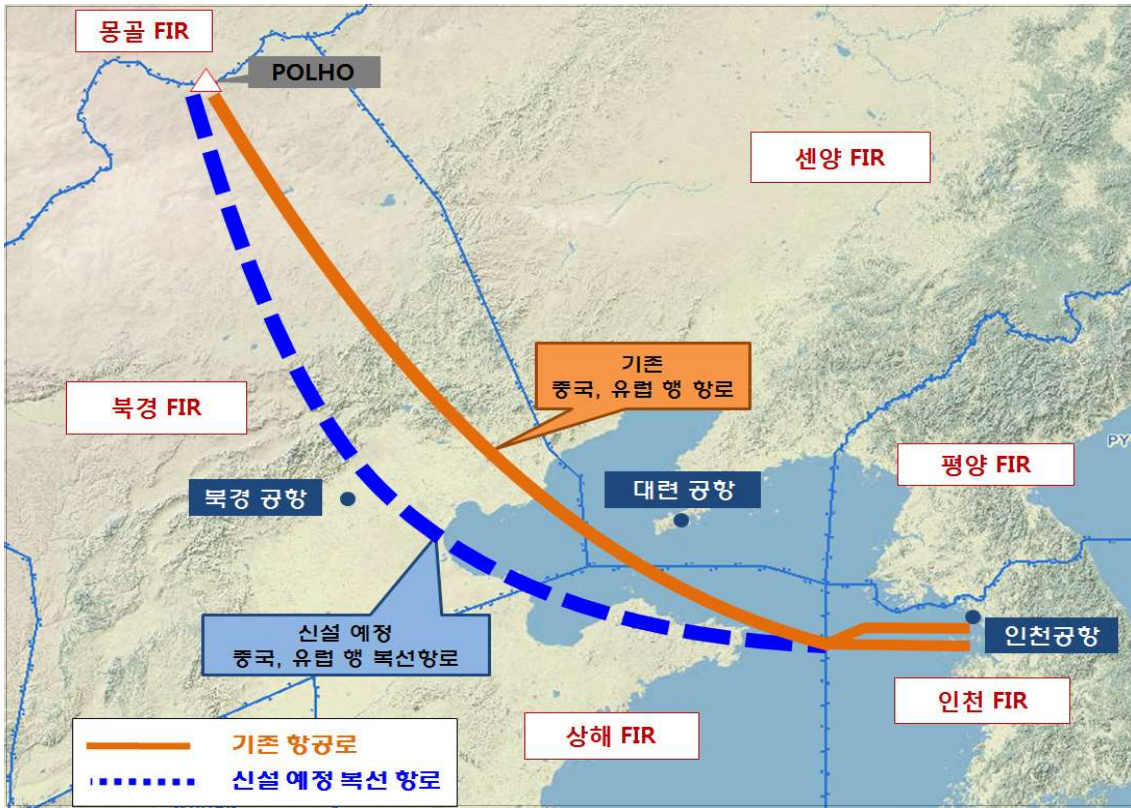
○ 인천을 출발해 중국·유럽방면 노선의 항공기가 주로 이용하는 한·중 항로를 올해 말까지 복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.

* 수석대표: (韓) 국토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, (中) CHE Jinjun 공중항공교통관리국장

○ 즉, 양측은 인천부터 중국을 거쳐 몽골하늘까지 연결하는 복선항로(1,700Km)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각 항로별로 일방통행(One way)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합의했다.

○ 시행시기는 올해 말까지 준비작업*을 완료하기로 하였고, 최종 시행일자는 조만간 상호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다.

* 시행전조치사항 : 관제합의서 개정, 공역위원회 심의, 비행검사, 국제고시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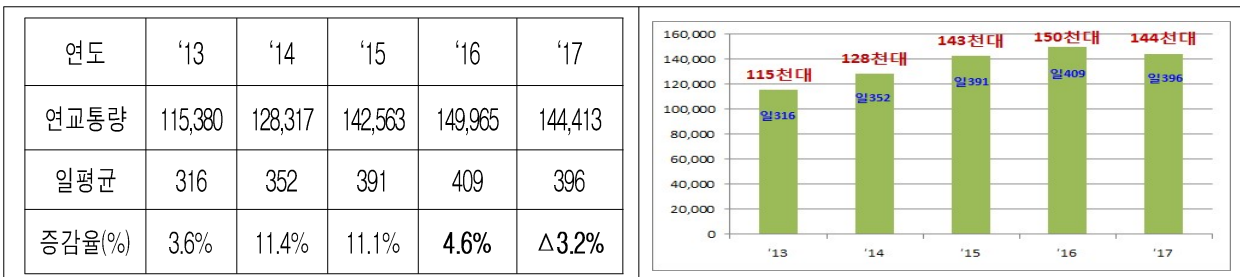
< 그림 - 航路 개선 개요도 >

□ 이번 합의로 개선되는 한·중 항로(G597/A326)는 하루 400여편이 운항중이고,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북부, 몽골, 중동, 러시아, 유럽행 항공노선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, 교통혼잡과 지연운항이 매우 심한 노선 가운데 하나이다.

* (교통량) '13년 115천대, '14년 128천대, '15년 143천대, '16년 150천대, '17년 144천대

* (지연현황) 인천공항 기준, '15년 899편, '16년 1,344, '17년 2,202편이 1시간 이상 지연

< 한국-중국/유럽행(G-597/Y64) 교통량 추이 >



○ 주로 중국 하늘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항로비행을 위한 대기, 지연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았고, 교통밀집시간대(12~16시)에는 1시간 이상 장시간 지연운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.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로개선이 완료될 경우, 연 144천대의 항공 교통이 혜택을 볼 수 있고, 그중에서도 37%가 우리 국적사여서 우리 항공이용객들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.
- 또한, 이번 항로체계 개선은 단순히 한·중간 항공교통 개선뿐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 전체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
 -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지난 5월 24일에는 ‘동남아행 노선 항로’ 1,466Km 구간을 북선향로 방식으로 개선한데 이어, 이번 합의까지 더해져 그동안 교통혼잡이 심했던 한반도 남쪽과 서쪽 간선향로의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동 노선의 국제항로 운항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7년 가까이 중국과 북선향로 방안을 협의해 왔으나, 양국 간 공역여건, 비행방향 차이, 한중 관계 등 영향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언급하면서,
 - 이번에 협의상대를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마침내 합의하게 된 것은 양측이 급증하는 항공교통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연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로설계, 비행검사, 항로 고시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, 아울러 중국과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 등 추가적인 항로 수용량 증대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 - 또한, 한·중 항공교통당국은 앞으로도 고위급 및 실무급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협력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세계항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·중 양국이 협력할 경우 매우 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김남극 사무관(☎ 044-201-429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동남아행 항로 및 중국·유럽행 항로 도면

